

OpenDoors

05

2023

VOL.253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북한선교현장

혜우의 필사 성경 이야기 (2)

박해와 선교현장

에리트레아(Eritrea)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

박해뉴스

카메룬 / 나이지리아

현장스토리

콩고민주공화국 :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신 주

부르키나파소 :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을 계속 의지해 나아갑니다

Heart To Heart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Arise Africa Campaign) /

오픈도어위클리(Open Doors Weekly) /

한국오픈도어 기도모임 / 300 기도용사 모집

Ch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OpenDoors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



고난의 현실에 처한 그리스도인

배춘섭 교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선교학)

현대 사회가 고도로 진보된 많은 기술적 편의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간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며 산다. 이런 고난은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고난이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난받는 인간은 우주의 일부에 속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이란 우주 가운데 여러 고난의 유동적 흐름의 자리에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삶은 그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아프고, 사고를 겪고, 고난을 당하다가 궁극에는 죽음을 맞이한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Covid-19(코로나)가 처음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정부 공식 자문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는 Covid-19의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과 Covid-19가 동시에 유행할 수 있는 '멀티데믹'(Multidemic)의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우리는 현재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상당 기간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는 국가마다, 지역마다 감염될 위험이 있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하고, 마스크를 안전하게 착용해야 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다. 더욱이 사람들은 서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떨어져야 했고, 심지어 실험용 백신을

몸에 맞아야 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사람들은 그렇게 겁에 질린 채 자유롭지 못한 삶에 매여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에 빠진 채 사람마다 영적 평안을 얻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과는 질적 차원에서 다르다. 분명 비그리스도인들이 예기치 않게 당하는 고난은 그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을 안겨준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겪는 끔찍한 질병과 바이러스, 재난, 전쟁, 사고, 기근 그리고 죽음을 극복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고난은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없고 발견할 수조차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떤 인생의 고통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작정' 속에서 선(善)한 열매를 맺게 된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기록한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 어떤 고난이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분명하게 주어졌다. 비록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을 수는 있지만, 마침내 그들의 고난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기쁨과 영광으로 승화된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묘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이유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당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받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는 결코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증거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고난받는 교회에게도 로마교회에 전해졌던 바울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선포되

기를 원하신다.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인이 전능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궁극적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알린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이라는 사실이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주일마다 지역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 땅에서 예배자이자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뜻하며, 타락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구원론적 공의’를 위해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상 이 땅에서의 고통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이다. 이 때문에 인간은 지금도 죄악된 현실을 마주하며 죄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본래 죄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으로 이해해야 한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이 세상은 우주 만물을 비롯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은 인간이 처한 저주, 즉 궁극적으로 죽음의 죄의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1절은 전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트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만약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가정할 경우, 그는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결코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 죄와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만이,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구원작정 속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사람이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것뿐이다. 그런 점에서, 구원의 첫걸음은 인간이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의 관계로부터 복음을 들음으로써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데 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영적 공황과 고통을 결코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작정과 창조 섭리에 속해 있고,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영혼을 보전(保全)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은 무시무시한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준다.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 평안과 소망은 그저 먼발치의 이야기일 뿐이다.

따라서 교회는 두려움에 떠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비록 이 땅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 많지만, 그들이 경험하는 고난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과는 그 의미와 박해에 있어 치환(置換)할 수 없는 차이를 갖는다. 그런 이유로, 오늘날 교회는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땅끝까지, 씀 없이 증거한다. 잠언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듯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는 결코 소망이 없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는 인생의 시련과 고난 그리고 방향만이 자리 잡을 뿐이다. 2023년 현재 지구촌 한 쪽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총성과 포성이 그치지 않는다. 다른 한 쪽에서는 기후온난화로 인한 기근과 침수, 강압적인 정치적 압제 그리고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교회가 고난을 겪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아주 적절한 기회가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직 복음전도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고난받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주의 날’을 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이 땅의 고난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전도(Evangelism)를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CONTENTS

05 북한선교현장

- 혜우의 필사 성경 이야기 (2)

07 박해와 선교현장

- 에리트레아(Eritrea)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Arise Africa Campaign)

16 박해뉴스

카메룬 / 나이지리아

18 현장스토리

- 콩고민주공화국 :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신 주
- 부르키나파소 :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을 계속 의지해
나아갑니다 (영상)

22 Heart to Heart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Arise Africa Campaign) /
오픈도어위클리(Open Doors Weekly) /
한국오픈도어 기도모임 / 300 기도용사 모집

2023년 05월호 | 통권 253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황자경,
민태홍, 김하영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송례아, 윤수지, 안요한,
이정현, 김안나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 김셋별

OPENDOORS 7가지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SUPPORT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
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
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
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
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후 혜우는 수많은 감옥에서 겨우 살아남고 강제 노동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겨우 썩은 옥수수 3컵(더 적게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을 먹고 하루 12시간을 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 땅의 지옥과도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곳은 악취가 풍겼고 감시관들은 너무나 잔인했으며 노동의 강도는 극히 심했습니다. 죽음은 마치 죽어가는 동물 위를 빙빙 도는 독수리처럼 수감자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시체를 불에 태웠고 재는 굴뚝에서 나와서 건물과 나무, 그리고 땅에 떨어졌어요. 저는 매일 같이 밭에 가서 농사일을 해야 했어요. 재를 밟고 지나갈 때마다 ‘언젠가 나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밟히겠지’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찬송가 495장(438 내 영혼이 은총 입어)과 시편 23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늘 알람이 울리기 직전에 기상하곤 했어요. 그리고 바로 앉아서 시편 23편을 암송했어요.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알려주었어요. 언제나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했던 끔찍한 환경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의 목자가 되어 주셨었죠. 주님은 언젠가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실 거예요. 지금은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지만 저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었어요. 주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젠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을 믿어요. 그 방법이 석방인지 죽음인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혜우에게 단지 생존하는 것 이상을 바라셨습니다. 혜우는 특정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



혜우의 필사 성경 이야기 (2)

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저는 살고 싶어요! 그들이 저를 고발이라도 하면 저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자 주님은 복음을 받아들이 준비가 된 사람을 지목해 주겠다고 대답하셨죠. 그 사람은 저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감자 동료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하는지를 다시 물었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했던 말이죠 ‘이르되 주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그 여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자 함께 있던 6명이 모두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에서 비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우와 이 여섯 명의 새신자들은 역겨운 화장실처럼 감시관들이 절대 오지 않을 장소에서만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혜우는 새신자들에게 찬송가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희는 혜우에게 조국에서 박해를 받을 때 위로를 얻었던 성경 구절이 혹시 더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두번째로 탈북 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박해자인 애굽인들로 부터 어떻게 해방시키셨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길에 막혀버렸죠. 저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선행으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감시를 받았어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었고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에 대해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께 저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환상 속에서 쌍무지개를 보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브로커를 찾아서 그에게 많은 돈을 지불했어요. 그는 저를 국경이 있는 강으로 데려갔는데 저에게는 마치 갈대 바다(홍해) 같았어요.” 브로커는 헤우의 아들(그 당시 한국에 먼저 도착한)이 보내준 돈으로 감시관을 매수했습니다. “저는 군인에게 제가 기독교인 인 것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 돈은 예수님이 주셨고 이제는 당신에게 준다고 얘기했죠. 그는 매우 놀랐어요.” 감시관이 떠나고 나자 브로커는 헤우에게 수심이 이렇게 깊고 해류가 거센데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을지 어떻게 아는지 물었어요. 헤우는 이렇게 대답했죠 “저는 믿음의 사람이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녀는 강가로 걸어가면서 힘과 용기를 내기 위해 노래 한 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노래였습니다.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강물로 들어갔는데 물에 한 걸음 들어가자마자 물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강은 헤우를 잡아당겨 데려가버렸습니다. 물은 마치 기차에 치인 것처럼 너무나 차갑고 어두웠으며 헤우는 숨을 쉴 수도, 수면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주님께 한 마디만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제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물속에 얼마 동안 잠겨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눈을 떴을 때는 중국 쪽의 기슭 가까이에 있었고 물은 겨우 무릎 높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반대쪽으로 올 수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장애물이 더 남아있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탈북 할 때는 마주하지 않은 2미터 높이의 전기 철창입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고 지치고 좌절해 포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이곳에서 죽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눈을 감고 머리를 철창에 박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철창은 전류가 흐르지 않았죠. 주먹을 펴고 맨손으로 철선을 움켜 잡았는데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기가 꺼져 있는 것이 확실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다가 큰 막대기를 찾아서 가시철사를 끌어내려 그

사이로 기어갔고 안전하게 중국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기적을 제게도 보여주셨어요. 제게 닥친 갈대 바다를 열어 주셨죠.” 이후 중국에서 탈출하는 것도 위태로웠습니다. 그녀를 비롯해 다른 망명자들이 탄 버스가 경찰에 걸렸는데 다행히 그녀에게는 부패한 경찰을 매수할 돈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국경을 넘어 미얀마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6시간을 있다가 배를 타고 태국으로 넘어가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생애 처음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거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것 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헤우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소지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신약 전체와 구약 일부를 필사한 공책들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도착한 후로 구약을 계속 필사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완성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는 않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도 있지만 오픈도어를 지지하는 분들 곧 제가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준 분들에게 이 성경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구속되고 나서 이 성경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정말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감옥에서 저를 영양실조와 질병으로부터 고쳐 주셨고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살아남도록 도와주시고 기적에 기적을 거듭해 제 필사 성경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요. 제 필사 성경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리고 북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를 적어주었습니다.

헤우의 요청에 따라 이 필사 성경은 오픈도어 네덜란드 개발사무실에 전시되었습니다.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3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기독교 박해지수

4 위

에리트레아 (Eritrea)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X 6개 영역 = 100).

주목할 만한 점 (Key findings)

정부는 에리트레아 정교회, 가톨릭, 루터교, 수니파 이슬람교를 제외한 어떤 종교 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승인되지 않은 교회에 속한 기독교인(개신교가 아닌, 복음주의 루터교는 개신교이지만 인정됨)은 지역 사회 자원, 특히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강제로 군에 입대해야 하며 기독교인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없다. 국가 봉사를 하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종교를 실천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극도의 압박과 매우 높은 수준의 국가 승인 폭력으로 인해 일부 기독교인들은 국가를 떠나야 한다.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 개종자와 정통 기독교 배경의 타종파 개종자는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권리 침해에 직면하고 있다.

에리트레아 (Eritrea)

국가 정보

지도자 : 이사이아스 아프웨르키 대통령

인구 : 3,662,000 명

기독교인 수 : 1,709,000명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주요 종교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인	1,709,000	46.7
이슬람교	1,882,000	51.4
민족 종교	22,100	0.6
불가지론	46,300	1.3

에리트레아의 정치 체제는 1991년 에리트레아의 정당인 독립 이후 권력을 잡은 이사이아스 아프웨르키 대통령이 지배하고 있다. 그의 정당인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인민 전선(PFDJ)은 이 나라에서 유일한 정치 단체이다. 그 플랫폼은 1961년부터 1991년까지 지속된 대통령의 개인 숭배와 에티오피아에 대한 에리트레아의 "해방 투쟁"을 기반으로 한다. 에리트레아 사람들은 개인의 권리와 민족성보다 국가적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도록 배운다. 인권 단체는 에리트레아를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한 개로 간주한다. 정치적 시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국가에는 독립적인 언론 기관이 없다. 에리트레아는 이전에 에티오피아의 연방 구성 요소였으며, 이로 인해 무슬림이 압도적으로 이끄는 에리트레아 해방 운동이 형성되었다. 에리트레아 정교회 기독교인들은 에티오피아 정교회와 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무슬림들의 움직임을 위험

하게 여겼다. 일부 급진적인 이슬람 단체는 정교회 기독교인을 독립 운동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간주했다. 이때부터 두 단체는 서로를 의심한다.

지역별 상황

기독교인은 종종 고지대에 거주하는 반면 무슬림은 저지대를 지배한다. 이슬람 억압은 특히 서부와 동부의 저지대에 존재한다. 기독교 교단의 보호무역주의는 고지대(중부)에 집중되어 있다.

박해받는 성도

국외로 추방된 기독교인 공동체

정부의 압박으로 외국인이 크게 줄고 있다. 이 그룹은 시골을 여행하고 다른 기독교인과 만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것은 에리트레아에서 가장 큰 그룹이며 에리트레아 정교회, 성공회, 루터교 및 로마 카톨릭을 포함한다. 이 기독교인들은 주로 기독교가 지배하는 에리트레아 중부와 남부 지역에 살고 있다. 그들은 이슬람 억압과 정부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기독교 개종한 이들

이 범주는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특히 정교회)를 떠나 비전통적인 교회에 가입한 기독교인이나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을 가리킨다. 첫 번째 범주는 에리트레아 정교회로부터의 심각한 폭력, 편협, 차별에 직면할 수 있고 후자는 무슬림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차별에 직면할 수 있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그룹은 에리트레아에서 가장 가혹한 박해를 받고 있다. 이 그룹은 침례교, 복음주의 및 오순절 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정부에 의해 서방의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특히 오순절 공동체는 심각한 압력과 폭력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부 관리와 에리트레아 정교회는 그들의 권리를 정기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박해와 차별의 주된 요인

기독교 교단 보호주의

에리트레아 정교회는 이 나라에서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으며 다른 배경, 특히 오순절파 기독교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정교회는 교회 지도자에 대한 감시, 폭력, 편협함, 정부와 이슬람 탄압 가해자의 차별 등 교회 업무에 대한 간섭과 같은 외부 압력에 면역이 되지 않는다.

독재 정치

1993년 독립 국민투표 이후 PFDJ는 아프웨르키 대통령의 지도 아래 단일 정당 국가로서 에리트레아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했다.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종종 서방의 대리인이라는 구실로 정권에 비판적인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괴롭히며 살해하기까지 했다.

이슬람의 탄압

에리트레아 인구의 약 절반이 무슬림이다. 이 중 거의 모두가 수니파이다. 대부분의 무슬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기독교인, 특히 개종자들은 특히 취약하다. 회심은 공동체, 가족, 무슬림 신앙에 대한 배반으로 간주된다. 이슬람 국가를 형성하려는 급진 단체의 압박이 있지만 정부의 전체주의가 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에리트레아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한 개이다. 2021년 국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에리트레아는 180개국 중 161위를 기록했다. 부패는 주로 국가 생활의 여러 측면을 통제하는 군대와 관련이 있다.

남성과 여성의 박해 상황 차이

여성

여성 기독교인들은 에리트레아 정부와 사회 사이의 압박에 휩싸여 있다. 개종자는 지역 사회 내에서 납치(신부 납치 포함), 가택 연금, 강제 결혼, 강제 이혼, 자녀 양육권 상실에 직면한다. 에리트레아에서 여성은 군대나 정부 부서 또는 프로젝트에서 의무적인 군사 훈련과 국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모든 행동과 신념이 면밀히 조사되는 고도로 통제된 환경인 악명 높은 SAWA 군사 훈련 캠프에서 훈련을 받는다. 수백 명의 여성도 구금 시설에서 젠더 기반 폭력을 경험한다.

- 납치
- 사회적 공동체/ 연결망 접근 제한
- 자녀 양육권 제한
- 상속 또는 소유 제한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정부에 의한 투옥
- 가족에 의한 감금/ 가택 연금
- 양심에 반하는 군대/ 민병대 징집
- 성관계 표적
- 인신매매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남성

기독교인 남성은 의무적으로 징병되어 고도로 통제된 환경에 놓이게 된다. 그 결과 많은 에리트레아 젊은이

들이 나라를 탈출하려고 한다. 일상 생활은 면밀히 조사된다. 전화 통화가 모니터링되고 대역폭이 느리게 유지되며 시민 네트워크(대개 여성)가 이웃을 염탐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그리스도인 남성에게 가장 특정한 압박 포인트에는 신체적 구타, 체포, 정부에 의한 투옥, 강제 도피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지하 교회 지도자 직책은 남성이 맡고 있기 때문에 체포되면 리더십 공백이 발생한다.

- 정부에 의한 투옥
- 군대/ 민병 징집/ 양심에 반하는 복무
- 폭력 - 살인 / 신체적

에리트레아 기독교 박해지수 5년 동향

연도	오픈도어 기독교 박해지수 순위	박해점수 (100점 만점)
2023	4	89
2022	6	88
2021	6	88
2020	6	87
2019	7	86

에리트레아의 점수는 주로 폭력의 증가로 인해 2022년 기독교 박해지수에 비해 1점 증가했다. 에리트레아 기독교인들에 대한 평균적인 압박 수준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극도로 견디기 힘든 상태로 남아 있다. 압박을 행사하는데 주로 책임이 있는 정부 정책을 반영하기 때문에 국가 및 교회 영역에서 가장 강력하다.



보고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 (2021.10.01 - 2022.09.30)

- 2021년 말에 여러 기독교인이 체포되었다. 12월 25일, 한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던 13명의 기독교인 그룹이 체포되어 수도 아스마라 외곽에 있는 마이 시르와 감옥에 구금되었고 두 명은 아스마라의 제2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 새해에는 바렌투에서 온 기독교 대학생 12명(남 6명, 여 6명)과 아스마라에서 온 13명의 기독교인이 체포되어 구금되었다.
- 2022년 3월 13일 주에 에리트레아 경찰은 복음주의 기독교인(오순절교) 29명을 체포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동안 아스마라(Debubawi Mierab, Maekel)에 있는 집을 급습했다. 경찰관들은 그들을 마이 시르와 감옥으로 데려갔다.
- 보도된 바와 같이 2022년 9월 5일경 에리트레아 보안군은 세계네티 아크루르에 있는 가톨릭 교회인 아크루르 메다날렘에 진입하여 그곳에서 기도하던 여러 젊은이를 체포했다. 보안군은 또한 습격 중에 집사, 교회 목사, 합창단을 체포했다.

보고 연도	살해당한 기독교인	납치당한 기독교인	강제결혼 당한 기독교인	국내 실항민이 된 기독교인
2023	2	244	100*	100*
2022	0	55	100*	10

이 표는 보고 기간 발생한 신앙 관련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Full Country Dossier(풀버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치 뒤에 표시를 붙였고 이 결과들은 실제로 상당히 더 높을 수도 있다.

개인 생활

모든 형태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된다. 기독교 가정이 급습되어 체포되고 기독교 자료가 압수당한다. 종종 정부의 감시는 당국이 비밀 조직을 발견하고 대량 체포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등록된 기독교인도 포함)에게 적용된다. 일상 생활은 면밀히 조사된다. 전화 통화는 모니터링되고 대역폭은 느리게 유지되며 시민 네트워크는 이웃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실제로 모니터링 수준은 북한과 비교되었다(이코노미스트, 2018년 8월 14일자). 모든 형태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된다. 기독교 가정이 급습되어 체포되고 기독교 자료가 압수당한다. 종종 정부의 감시는 당국이 비밀 조직을 발견하고 대량 체포할 때까지 계속된다.

가족 생활

부모의 권리, 특히 비전통적 기독교인의 권리는 제한된다. 정부에 반대하는 것은 체포, 고문, 법적 보호 거

부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학교와 청소년 군사 훈련 기간 동안의 정부 선전은 종종 기독교 가치와 직접적으로 모순된다. 'P'ent'ay'(펜테)라는 용어는 정통 테와헤도 교회의 구성원이 아닌 기독교인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경멸적인 용어이다. 펜테와 그들의 자녀들은 교사와 동료 학생들로부터 상당한 압력에 직면해 있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낙인 찍히고 괴롭힘을 당하며 심지어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특히 부모가 투옥되었거나 투옥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종종 가족 구성원은 취약한 가족 구성원을 남겨두고 조국을 떠나야 한다. 에티오피아의 티그라이 전쟁에 에리트레아가 개입한 것도 가족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다. 강제 징용이 심화되고 저항이 용납되지 않는다. 가족은 탈출한 청소년에 대해 처벌을 받는다.

공동체 생활

에리트레아에는 이웃의 활동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은 시민 네트워크(특히 이전에 자유 투사였으며 지금은

집권당 대표인 여성)가 있다. 이 정보 제공자들은 지하 교회 모임을 주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공공 행정관에게 보고한다. 인터넷 사용과 통신에 대한 정부의 감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반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요한다.

국가 생활

정부는 오직 4개의 공인된 종교 단체만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에리트레아 정교회의 총 대주교를 임명하는 것은 정부이며, 2007년에 일어났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의 반대가 있을 경우 직위에서 해임되고 체포될 수 있다. 국가의 인정 거부는 지방 당국이 미등록 교단에 속한 기독교인을 체포하고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 간주된다. 처벌에는 외딴 지역에 위치한 수용소 중 하나로 보내지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한 구금 시설에서 풀려나면 개인은 자신의 (인정되지 않은) 종교를 비난하고 정기적으로 지역 경찰에 신고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정당을 국가의 적으로 본다.



교회 생활

모든 교회는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승인되지 않은 교회는 가장 많이 감시되고 차단된다. 지도자들은 특별히 표적이 되어 체포, 고문, 기아, 고된 노동을 당할 위험이 있다. 정교회조차도 반정부 메시지로 간주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설교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또한 공인된 교회의 종교 지도자 선출에 개입한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에리트레아는 다음과 같은 국제 조약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4.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

에리트레아는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 기독교인은 비인간적인 환경에 투옥되고 고문을 당한다 (ICCPR 7조, 10조)
- 에리트레아인들은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무기한 군 복무 및 국가 복무를 강요당한다 (ICCPR 8조, ICESCR 11조)
- 기독교인은 재판 없이 자의적으로 체포되고 투옥당한다 (ICCPR 9조)
- 미등록 단체의 기독교인은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 (ICCPR 18조)
- 미등록 단체의 기독교인은 예배를 위해 모이거나 만날 수 없다 (ICCPR 21조)

이외 소수 종교 집단의 상황

“당국은 24명의 여호와의 증인을 계속해서 구금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군 복무를 거부하거나 신앙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20년 이상 투옥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0월과 2018년 3월 아스마라 시위 이후 최소 20명의 무슬림 시위대가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이 1993년 독립 국민투표에서 일률적으로 투표를 거부하고 이후 의무적인 국가 봉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특히 가혹한 대우를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을 계속 지목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1994년에 그들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정부는 법을 따르지 않거나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과 기타 종교 수감자들을 계속 구금하고 시민권을 거부했다.” (US IRFR 2021)



에리트레아 오픈도어 사역

오픈도어는 1990년대부터 지역 교회를 통해 에리트레아에 개입해 왔습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전인적인 권능을 받아 믿음 안에서 강하게 남고 박해에 직면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강한 에리트레아 교회를 보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 박해 대비
- 경제적 역량 강화
- 제자화

Arise Africa Campaign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1-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본 캠페인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폭력적인 기독교 박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고 함께 연합하며 폭력적인 박해에 함께 맞서기 위한 동역입니다. 저희가 동역하지 않으면 이곳의 교회들은 미래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앞으로 4년 동안 이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세계 교회들이 이 폭력적인 박해에 맞서 함께 일어서기를 기대합니다. 깨어 간절히 기도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현재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세요. 오픈도어는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와 만연해 있는 폭력에 맞서기 위해 캠페인활동을 하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4년 동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기독교인 성도들 400만명을 접촉하고 이들에게 영적, 물리적, 그리고 정서적 지원

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프리카의 폭력적인 기독교 박해에 함께 맞서주세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요?

이 지역의 폭력 상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코하람(Boko Haram), 이슬람국가(IS), 알샤바브(al-Shabaab)와 같은 극도의 지하디스트 단체들은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소말리아, 그리고 말리와 같은 나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혼란과 강도 가운데서도 작전을 펼치며 기독교인과 무슬림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이중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연간 데이터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5,170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1,500 기독교인들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대략적 추산

2,714 기독교인들은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에서 기독교는 번영하지 않았나요?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다른 어느 곳 보다 아프리카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 들에서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이 전혀 없는 맹습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많은 이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위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용기와 회복과 더불어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홀로 견디게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 폭력적인 박해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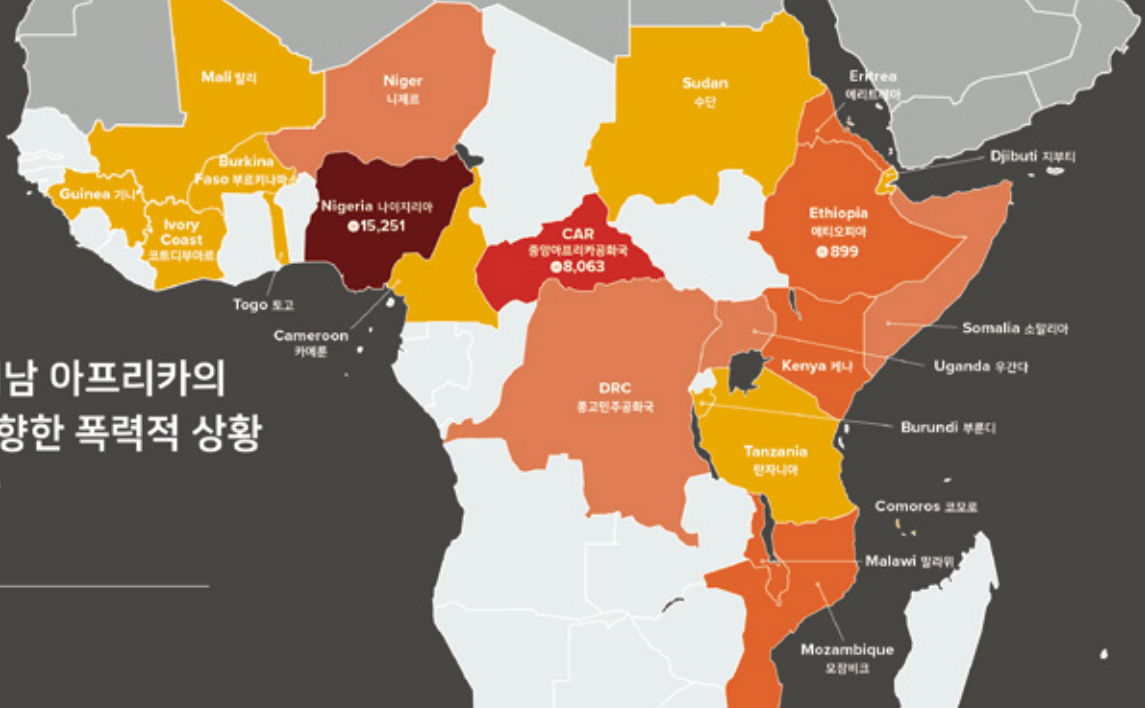
영적 충격: 박해로 인해 보통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리거나 심지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적 상황

● 기록 없음 ● 201-1000
● 0-50 ● >8000
● 51-200 ● >15,000

● 피해를 입은 기독교인들의 수

2022년도 확인된 현장 사건 데이터



위험한 사상들로 과격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생존은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정서적 충격: 폭력적인 박해의 피해자들은 정신적 외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분노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수의 기회를 노려 폭력의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우울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교회는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리적 충격: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1200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들의 교회의 존재 자체를 위협에 빠트렸습니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의 많은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회경제적 충격: 극단주의자들은 생계를 훔치고 납치로 엄청난 몸값을 요구하고 집을 망가뜨려 기독교인들의 삶을 파괴하고 교회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픈도어가 본 캠페인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은 무엇인가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를 당한 모든 가족들을 영적, 물리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전세계 교회들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사태에 대해서 깨어 있고, 연합하고, 열심을 내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미디어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에 대해 충실하고 계속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더 연합하고 기독교인에게 행해지는 극심한 폭력과 그 영향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고 문제를 다루는데 더 충실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법률전문가들과 정부 관리들을 잘 갖춰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여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와 폭력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오픈도어는 무슨 사역을 하나요?

오픈도어는 1990년대 초부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현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지지해왔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2022년에는 500,000명에게 다가갔고 성경 훈련, 사회경제적 지원, 트라우마 치료, 그리고 교육/생계 훈련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들의 막대한 필요를 채워가기 위해서 현장 사역을 대폭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 확장의 일환으로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을 중심으로 사헬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폭력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정책 입안자들과 의사결정자들에게 발표할 계획입니다.

카메룬_최북단 지역에서 목사님과 사모님 부부가 납치당하다



친구 추가하시고 매주
전세계의 기독교 박해뉴스를 받아보세요.

2023년 3월 15일에 카메룬의 최북단 지역에 위치한 로고네-샤리 경계의 포토콜 지역에서 바울 무사 목사님과 아내 이네스 사모님이 납치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0대의 무사 목사님은 4년 동안 카메룬 포토콜의 Church of Christ in Nations(COCIN) 교회를 섬겼고 나이지리아 감바루에서도 Church of Christ in Nations(COCIN) 교회 목회를 담당했습니다.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에 따르면 목사님 부부는 일찍 기상해 나이지리아로 자주 이동해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사라진 아침에도 딸은 부모님이 벌써 집에 없을 것을 예상해 청소를 하고 등교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하교하고 나서야 부모님이 아직 귀가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오빠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들은 집 안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에 바닥에 서류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옷들도 부부가 납치되던 아침에 이들 구역의 문이 열려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나중에 되어서야 경찰에게 보고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들의 행방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무사 목사님의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고 지금까지 누구의 소행인지, 그리고 몸값 요구에 대한 언급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 파트너는 아직까지도 이들 부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정보원은 이들에 대한 몸값이 요구된다고 할지라도 정부 당국만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포토콜 지역에서 이와 같은 사건들이 흔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몸값 요구가 주로 뒤따른다고 전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한 거주민은 올해 2월 이래 다라크와(Darak) 힐레 알리파(Hile Alifa) 지역에서 50명 가까운 사람들(대부분이 어부)이 납치당하고 몸값을 요구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거주민에 따르면 2022년 2월에는 포토콜 지역에서 국경없는의사회(MSF) 직원 5명이 납치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보도 자료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기독교협회(CAN)는 나이지리아의 교회들에게 무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랍된 목사님과 사모님을 풀려나게 해주시도록 모든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 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 하나님이 바울 무사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느 곳에 있는지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하나님이 바울 무사 목사님과 사모님이 풀려날 길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하나님이 바울 무사 목사님과 사모님을 잃어버린 가족과 교회를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현지 안보 기관이 바울 무사 목사님과 사모님을 찾아 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와 요령을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나이지리아_ 난민캠프의 기독교인 실향민들이 풀라니 무장세력에 의해 살해당하다

2023년 4월 7일 저녁에 풀라니 무장세력으로 의심되는 이들이 나이지리아 베누에 주에 위치한 한 거대 비 공식 난민캠프를 공격해 최소 32명의 기독교 국내 실향민이 살해당했습니다. 오픈도어의 현지 파트너들은 공격은 금요일 밤 9시에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난민캠프의 지도자는 현지 파트너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사건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발생했어요. 무장세력들은 이곳으로 난입해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온 것을 사람들이 눈치 채자 이들은 여기저기 총기를 난사했고 이것으로 32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국내 실향민 난민캠프는 30,00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는 지난번 발생한 풀라니 무장세력의 공격 때 마을을 떠나 이곳으로 온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난민캠프는 주로 여성과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성들은 살해당했거나 난민이 된 가족들을 보살피고자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난민캠프에서 지내고 있는 남성들은 나이가 들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입니다. 현지 관계자는

초기 보고에서 살해당한 이들 중 많은 수가 여성과 어린이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베누에 주에서 공격이 발생하자 많은 기독교인들은 현지 초등학교 옆에 위치한 공터로 도망쳤는데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그곳은 안전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베누에 주에 걸친 광범위한 공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 하나님의 위로가 이 국내 실향민 난민캠프에 임하도록 기도해주세요.
- 공격으로 인해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상실과 애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성령님께서 공격으로 인해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은 모든 난민캠프들을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한 난민캠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큰 충격을 받은 공동체를 가장 최선으로 목회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지방 정부가 이와 같은 취약한 공동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콩고민주공화국_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신 주

저희가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은
몹시 끔찍한 폭력으로
기독교인들을 표적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기독교인들은
여러분의 지지로 계속 견디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 이야기를 읽기 전에 어떤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거트루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발은 총상으로 인해 몹시 고통스러웠고 복부에 입은 총상으로 피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흙 속에서 고개를 들어 도망쳐온 들판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무장을 한 남성들이 남편을 살해하고 있었습니다. 3살된 아들이 지켜보는 데서 그들은 남편의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그를 잔인하게 참수했습니다. “저에게 남아 있던 힘조차 다 빠졌어요. 그들이 남편을 살해할 때 저도 죽은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부양해야 할지 몰랐어요.”

“주님은 저에게 고통을 견딜 힘을 주셨어요.”

27세의 거트루트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이 만연해 있고 교회들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걸쳐 우리의 형제자매들은 극심한 박해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거트루트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ADF(콩고민주공화국동부 북키부주 고마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가 숲속에서 튀어나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들을 지키고 저는 수풀 사이로 기어들어 갔지만 그들은 제 발과 배에 총을 쏘았어요.” 그리고 3살된 아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거트루트의 삶은 극심하게 힘들어졌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비탄과 슬픔을 견디어야 할 뿐 아니라 과부로서 살며 적은 소득에 영구적인 부상을 가지고 다른 아이들을 부양해야 합니다. 두려움과도 계속 마주해야 합니다. 하루는 ADF(콩고민주공화국동부 북키부주 고마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가 가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들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웃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인을 저지르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거트루트는 견디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신실한 지지 덕분입니다. “주님은 저를 위험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어요. 주님은 저에게 고통을 견딜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선물을 통해 오픈도어는 거트루트가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녀는 마을 주민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게를 열었고 성공 시키기로 걱정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같은 형제자매들을 통해 이렇게 공급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거트루트는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박해 받는 형제자매들과 연합할 때 그들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하고 폭력적인 박해에 맞설 수 있습니다. “총상을 당하고 남편이 살해당한 후에 모든 것이 힘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저를 살아가게 해요.”



기도해 주세요

- 거트루트가 홀로 아이들을 키워나갈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주세요.
- 거트루트의 사업이 번창하고 성장해서 좋은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걸친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이 종식되도록 담대함으로 기도해주세요.

부르키나파소_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을 계속 의지해 나아갑니다 (영상)

부르키나파소에는 200만명이 넘는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많은 수가 기독교인 과부와 고아와 같은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2019년에 지하디스트들은 트라오레의 아버지를 살해하면서 이것이 한 기독교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하면서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을 영원한 상속으로 심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트라오레는 선교사가 되어 아버지가 보여준 본을 이어 나가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에 트라오레를 처음 만났을 때는 서투른 남자 아이였는데 지금은 키도 크고 튼튼한 팔과 넓은 어깨를 가진 자신감 있는 17세 소년의 모습입니다. 이 소년



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후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직업에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의사나 군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공부를 하면 직업도, 돈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저의 비전은 그 방향과 맞지 않아요.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저희가 처한 실제 상황 때문에 그래요.”

트라오레가 얘기하는 것은 지하디스트의 반란으로 인해 부르키나파소에 초래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2016년에 말리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는 부르키나파소 북부 지역으로 번졌고 그 때부터 나라 안으로 더 깊이 퍼졌습니다. 트라오레와 가족들은 원래 부르키나파소 북부 지역에 위치한 숨 주의 아리빈다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아리빈다 마을은 북쪽에 위치한 다른 여느





마을들처럼 모든 이들이 살기에 평화롭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트라오레는 그 때를 기억합니다.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묵상을 하고 기도를 드리곤 했어요. 저는 학교에 갔다가 정오에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제가 학교 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출근했던 것이 생각나요.” 그곳은 생활하고 일 하기에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트라오레는 성실한 학생이지만 수업이 없는 날에는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것은 트레오레에게 소중한 추억들입니다. “가끔 수업이 없는 날에는 아버지랑 같이 낚시를 다녔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집에 돌아오면 누나/여동생들이 가서 물고기를 팔았죠. 토요일 저녁에는 같이 축구를 하거나 수풀로 산책을 가거나 다른 사람들이 축구 하는 것을 구경하곤 했어요.”

2019년에 트라오레와 가족들은 아리빈다 마을의 중심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저는 작은 마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도심지에 있는 한 목사님의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저희는 양과 소유물들을 가지고 갔는데 저희 양들이 있을 곳은 없었어요. 저희 동물들에게 줄 식량은 다 떨어졌고 그 당시 학교는 모두 문을 닫아서 저희는 집에만 있었어요.” 트라오레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2019년 화요일날 있었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저희는 오전 9시쯤에 일어났어요. 그날 아침에는 아버지가

저에게 약초와 향초를 꺾으러 멀리 산책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웃들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커피와 차를 내려 주셨죠. 저희는 아침 성경 묵상을 하러 교회에 갔고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지만 아버지에게 설교를 부탁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저희는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길을 나서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저희가 향하는 마을은 15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긴 산책을 하고 약초와 향초를 꺾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필요한 약초를 꺾어서 묶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

계속해서 트라오레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 들어주세요.



유튜브 채널 들어가기

영상 보기 →

“오픈도어_Open Doors South Korea” 유튜브 채널 (QR코드를 찍어주세요)에서 “힘이 되신 예수님을 계속 의지해 나아갑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Heart To Heart

Weekly

오픈도어위클리 발행

4월부터 모바일 주간지

“오픈도어위클리(Open Doors Weekly)”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기독교 박해국가 상위 50개국에 대한 정보,
박해뉴스, 현장스토리, 그리고 영상자료를 담은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카카오톡채널 친구 추가하시고

오픈도어 주간지를 받아보세요.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Ch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오픈도어 기도모임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3절)



매주 화요일 저녁 7:30-8:30 오픈도어 온라인 기도모임이 진행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전 세계 박해 받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참여하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모바일번호로 문자를 남겨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매주 기도모임 온라인 참여 링크를 보내 드립니다.

*모바일번호: 010-7548-3171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QR코드 스캔)



박해 지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300 기도용사를 모집합니다.

기도용사는 **주간 기도제목**을 통해 한 국가를 위해 일주일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용사는 **매월 발행하는 기도월력의 기도제목**을 통해 여러 국가를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용사는 **지역에서 모이는 기도집회**에 참석하여 전 세계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대표번호로 신청해주세요.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https://www.opendoors.or.kr/> (QR코드를 찍어주세요)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대표번호: 02-596-3171



**300 기도용사
신청 QR코드**

ARISE AFRICA CAMPAIGN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Arise Africa Campaign)

동역자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폭력적인 기독교 박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주시고 연합하여 폭력적인 박해에 함께 맞서 주세요. 이곳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여러분의 기도와 지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

다가오는 5월 7-14일에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일주일 기도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기도제목은 기도월력을 참고해주세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선물

- 25,000원으로 박해 받는 가정의 젊은이들 4명에게 한 달치 교육을 제공하여 희망을 선물합니다
- 60,000원으로 극심한 폭력을 경험한 3명의 기독교인들에게 트라우마 치료를 통한 치유와 소망을 선물합니다
- 160,000원으로 박해로 인해 실향민이 된 4명의 기독교인들에게 식량, 의약품, 그리고 생존을 위한 이외 긴급 구호를 선물합니다
- 270,000원으로 박해 받는 가정의 젊은이들 4명에게 일 년치 교육을 제공하여 희망을 선물합니다

아프리카 후원 신청은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https://www.opendoors.or.kr/> (QR코드를 찍어주세요)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대표번호: 02-596-3171



Open 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